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지역 기업 제품 사주기

투자 이끌어 내려면 기업사랑 먼저

광주시와 전남도가 'BUY 광주-전남'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이 사회공헌도가 낮거나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며 지역기업에 대해 비난만 터뜨릴 게 아니라,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통해 지역기업에 용기를 불어넣고 애정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지역내 구매율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아차 시장점유율은 광주 29.9%, 전남 28.1%로 현대자동차 47.6%, 50.2%에 비해 크게 뒤졌다. 지난해 1~10월중 기아차의 광주지역 시장점유율은 광주 1.5%, 전남 0.7% 감소한 반면 대우차는 0.9%, 0.8% 약진했다.

금호타이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광주시민들, 지역기업 호감도 낮고 반기업 정서 높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광주·전남지역 점유율은 46%로 2005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대신 33%의 한국타이어는 소폭 신장했다.

광주지역 기업호감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초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의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46.5점으로 집계돼 대구(45.8%), 인천(46.1%), 충북(46.3%), 다음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임을 보여줬다.

이같은 광주·전남지역 분위기와는 달리 경북 구미 시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LG필립스LCD를 위해 1주 갖기 운동을 펼쳐 큰 감

동을 전해줬다.

구미 경실련은 올초 "어려울 때 시민들이 기업돕기를 위해 정성을 모으면 잘 될 때 구미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1주 갖기 운동은 시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5년 울산시민들은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SK 주식사기 시민운동'을 펼쳤고, 지난해 포항시민들은 '포스코 1주 갖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부산시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임산·출산가구 차량가격할인 협약을 맺고 올해 아이를

갖거나 낳은 가정에 최고 50만원까지 자동차 구입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순천대 J교수는 "SK는 지난해 4월 100만평 규모의 울산공원을 조성하며 이어 향토발전기금 조성, 다양한 메세나 활동으로 울산시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시민단체들이 지역기업에 대해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범시민 차원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광주시는 '2007년 기업사랑운동 5대 중점과제'를 확정, 지역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 등 대기업 제품 중심의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나 올해에는 전국제전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사주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회전스팀 진공청소기 출시
삼성전자가 24일 회전스팀 진공청소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브러시 부위에 먼지 흡입구와 스팀 분사기, 회전 물걸레를 차례로 배치해 진공청소기로 굵은 먼지를 먼저 흡입한 후 100℃의 스팀과 고속 회전하는 걸레가 바닥을 말끔히 닦아준다. 시판가는 32만9천원. <삼성광주전자 제공>

주택대출 금리 또 인상

하나·신한·국민銀 등 잇따라

서민 대출자 이자 부담 가중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해 주택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2% 포인트 올려 6.27~6.97%로 조정했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2월부터 6.24~6.94%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3일 0.01%포인트 오른 데 이어 다시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월 말부터 5.94~7.04%를 유지하다가 이날 5.96%~7.06%로 올랐다.

지난 2월말 이후 5.84~7.14%였던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현재 5.86~7.16%를 기록 중이며 국민은행도 이번주 0.01% 상승한 5.66~7.26%를 나타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른 것은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23일 연 4.97%를 기록해 전날보다 0.02% 상승해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금리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월초 4.96%까지 오른 뒤 두 달 동안 4.94%를 유지하다가 17일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농산물 3,300만달러어치 수출"

광주·전남 농협 적극 추진

광주·전남지역 농협들이 올해 3천300만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24일 대강당에서 농산물 수출유관기관과 광주·전남농협수출협의회(회장 고희천)회원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와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농산물수출 3천300만달러 추진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2천800만달러보

다 17.8% 늘어난 액수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참여 ▲수출품목별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전남농협수출협의회는 1996년 결성됐으며 회원농협인 나주배농협이 2005년 600만불, 고희두원농협이 400만불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 2006년에는 고희두원농협이 500만불, 나주평농협이 300만불, 정남진장흥농협이 100만불을 기록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노무현 정부 4년 '지역별 경제 고통지수'

광주, 가장 힘들었다

LG경제연구원 물가 등 조사

경북·충남·전남은 양호

노무현 정부 4년(2003~2006년)간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지역별 경제 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부산이 경제적 고통을 심하게 받은 반면 경북과 충남은 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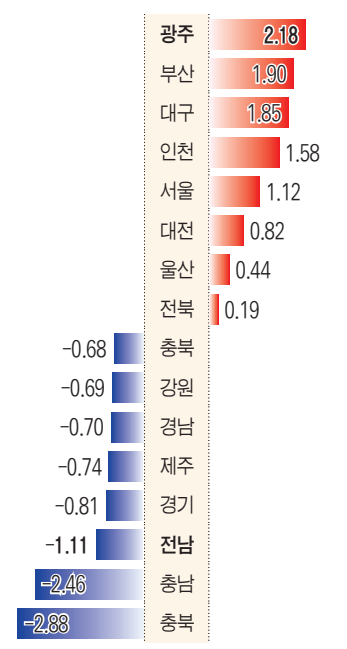
분석결과 이 기간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광주(2.18)로 나타났다. 부산(1.90) 대구(1.8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1.58) 서울(1.12) 대전(0.82) 울산(0.44) 전북(0.19) 등

▲경제적 고통지수=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코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지표로 통상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계산한다.

도 전국 평균수준을 뛰어 넘었다. 통계상 경제적 삶의 질이 가장 나빴던 광주의 경우 물가(3.2%) 실업률(4.1%) 어음부도율(0.5%) 등 3가지 지표가 모두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과 대구는 물가(부산 2.9%, 대구 2.8%)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지만 실업률(모두 3.9%)과 어음부도율(모두 0.5%)이 높은 수준이었고 산업생산증가율(1.7% 0.6%)은 최하위권이었다.

2003~2006년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어음부도율-산업생산증가율을 표준화한 지수 *전국 평균 경제고통지수를 0으로 놓고 표준화



자료:LG경제연구원

반면 경제적 고통이 가장 덜했던 지역은 경북(-2.88)으로 파악됐다. 충남(-2.46) 전남(-1.11) 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국세청장 오대식씨

중부국세청장 권춘기씨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오대식(53) 본청 조사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권춘기(53)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승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오 서울청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본청 세정혁신

추진기확단장, 서울청 조사국장 등을 거쳐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서 부동산 투기와 고소득 전문직 연령업자에 대한 세부조사 등을 주도했다.

권 중부청장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한 뒤 역시 행정 21회로 공직에 들어와 서울청 조사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작년 1월에는 신설된 부동산세관리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종합부동산세 조기 정착 등에 기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구직자 10명중 1명 "즉집게 취업 과외"

구직자 10명 중 1명은 극심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 취업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대일로 지도를 받는 일명 '즉집게 취업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844명을 상대로 '일대일 취업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6%가 '취업준비로 일대일 즉집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대일 취업과의 내용으로는 발명·발상·자신감 강화 등 면접

교육이 36.7%로 가장 많았고 영어회화(18.4%), 토익·토플 등의 영어과외(17.3%), 자격증이나 공무원시험 관련과외(15.3%), 메이크업 등 이미지컨설팅(9.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직자들이 일대일 취업과의에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취업과의를 받은 기간은 1개월 이하(59.2%) 2~3개월(31.6%), 4~6개월(6.1%)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구직자 중에서는 14.2%, 여성은 8.4%가 일대일 취업과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이자를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Travel packages including '목포출발', '고흥(녹동)출발', '제주출발', and '2박3일 항공+항공투어' with prices and details.

탈모!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Advertisement for Sens-Mo hair treatment, featuring a man's hair before and after, and a list of benefits.